

경기개선·정부일자리 정책 등 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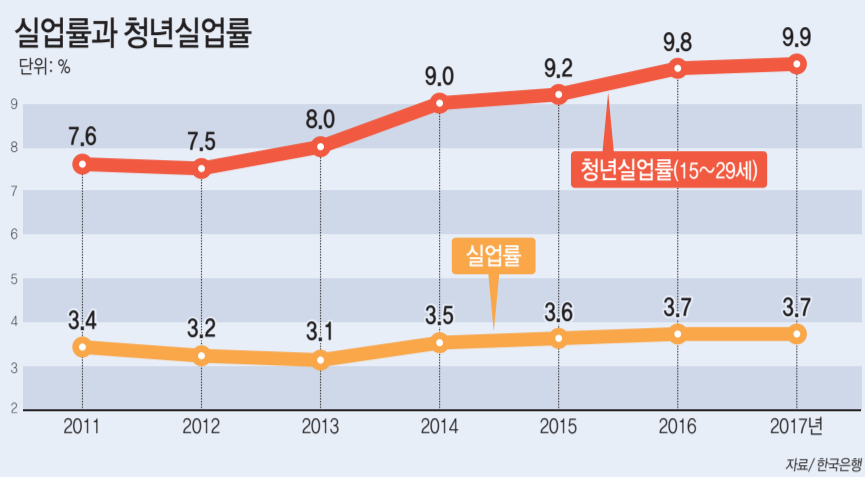
# 서비스업 발목 잡힌 韓... 소득주도 성장 무용론 대두

고용탄성치 6년간 지속적 감소세  
제조·건설업 보다 서비스업 부진  
청년 실업률 10%... 6년간 늘어

국내 경기 개선, 정부 일자리 정책 등 최근의 긍정적 고용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용 회복세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탄성치가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이 부진하고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고용탄성치는 10만8000명으로 지난 2011~2016년 평균을 밑돌았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고용탄성치는 지난 2012년 19만명에서



2014년 16만명, 2015년 12만1000명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가 성장해도 취업자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한은은 이에 대해 고용탄성치가 큰 서비스업의 부진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지난 2011~2017년 3분기 고용탄성치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12만5000명으로 제조업 2만3000명, 건설업 8000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1~3분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사

업서비스는 1.4%, 정보통신은 1.7% 성장에 머물렀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줄었고 가계소득이 정체하면서 국내 서비스업의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가계의 전년 동기 대비 실질소득 증가율은 지난 2014년 2.1% 이후 2015년 0.9%, 2016년 -0.4% 등으로 쪽 하향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1~3분기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가계 실질소득이 0.8%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이어 "인쇄, 가죽제품, 의복 등 노동집약적 일부 제조업종의 성장이 더딘 점도 고용 없는 성장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1월 의복, 인쇄, 가죽제품 등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은은 아울러 청년 일자리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점도 고용 회복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 관계자는 "사회초년생(20대 후반) 인구가 늘고 이들이 고용 안정성을 추구하는 반면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하려는 기업의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10% 안팎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에 더해 지난 2016년 하반기 이후 구조조정 이직자,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등이 대거 영세 자영업자로 전환하여 자영업이 포화 상태를 맞으며 추가 채용 여력이 줄어든 점도 고용 없는 성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다만 앞으로 고용 여건이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정부의 가계소득 확충 정책 등에 따라 서비스업황이 개선될 것이라 분석했다.

보건복지 및 공공행정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역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가운데)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8년 2월)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수출·투자 '호조' 지속되는데... 1400조 가계부채에 '소비 절벽'

3개분기 동안 소비 2.3% 증가 불구  
한은 "원리금 부담에 회복 더딜 듯"

지난해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차주별 상환 부담으로 인해 국내 소비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수출 및 투자의 견조한 증가세, 주요국의 완만한 금리인상, 확장적 재정 운용 등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지난 2016년 4분기 이후 수출 및 투자가 호조를 보이며 과거 경기회복기 평균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만은 회복세가 미약한 모습이다.

소비는 지난해 3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2.3% 증가했는데 이는 과거 회복기와 비교했을 때 미흡한 수준이다.

과거 1989년 이후 6차례 경기 회복기 때는 같은 기간 최저 3%(2005년 2분기 이후), 최고 10% 이상(1998년 3분기 이후) 개선됐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앞으로도 예전보다 회복 속도가 더딜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한은은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세계 경기회복을 배경으로 한다고 평가했다. 과거 우리나라 경기 회복기가 글로벌 경기 상승과 맞물리면 강도가 더 강하고

기간도 길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6번 중 4번이 세계 경기회복 국면과 일치했다.

한은은 또 주요국 중앙은행이 올해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갈 것으로 봤다. 통화정책 충격이 경기회복세를 약화시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예상했다.

과거 글로벌 경기회복기에는 주요국이 완화정도 축소에 나섰고 정책기조 전환 후에 금리를 빠르게 큰 폭으로 인상했다.

한은도 지난해 11월 금리인상 후에는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 추가 조정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한은은 아울러 정부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고 재정정책이 당분간 확장적으로 운용되고 이는 경기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전 경기회복기에는 대체로 긴축재정 정책을 펼쳐서 재정수입 증가율이 높아지며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경기회복기에도 글로벌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수출과 투자확대가 경기를 끌어올렸으며 소비는 회복이 완만하고 증가폭도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분석했다.

이 외 근원물가는 경기회복 국면 진입 후 시차를 두고 오름세가 확대됐고 경기수축 국면 전환 후에도 일정기간 흐름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민간신용 확대와 주택가격 상승도 대체로 동반했다고 덧붙였다.

/이봉준 기자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 신한 착한생활비Plus 종신보험

(무배당, 저해지환급형)

보험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디지털 금융으로 편리하게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사망보험금은 고액적 사고 및 2년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저해지환급형(50%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반형(100%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100%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형태입니다.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해지공제액 포함),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생활자금 신청 시 생활자금이 지급될 때마다 사망보험금이 감액되며, 해지환급금이 줄어듭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지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794호 (2017. 2. 28.)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보험 | 신한생명